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한화엄경:시공을너머핀꽃	정엄	리즈앤북	6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2	담마빠다(법구경)빠알리어직역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7	여래장사상의원전(학술총서77)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3	불교문화(조계종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도표로읽는경전입문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4	붓다의향훈을따라서:인도네팔불교성지순례가이드북	대연스님	해조음	9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가르침불자의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금강경역해:금강경산스끄리뜨원전분석및주해	각묵	불광	10	칸니명상:아니빠나삿띠와위빳사나수행의입문서이자안내서(명상,그자유로운길에서다)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책세상

청소년포교 중흥…전법 60년 생생한 기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김재영 지음
운주사 / 2만5천원

김재영 법사 불교 인생 60년 회고록
어린 시절부터 80성상 기록 모두 담아
1970년 동덕불교학생회 창립 이끌어
개인사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 한 축



녹야원 초전법륜탑에서 정진 중인 김재영 법사와 불자들.



출판기념회에서 사인회를 진행하는 김재영 법사.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동덕불교학생회 창립, 1970년 당시 무진장 스님을 모신 창립법회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여 삼귀의를 모셨다. 전국을 통틀어 불교학생회가 10여 곳에 불과했던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한국불교 청소년 포교에 불을 붙였다. 한 때 동덕여고 전교생의 절반이 동덕불교학생회 회원이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동덕여고 역사 선생님이었던 김재영 법사가 있었다. 김재영 법사는 그렇게 전법 60년 인생을 시작한다. 청소년 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김재영 법사의 이름은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니다. 최근에 김재영 법사의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가 출간됐다. 책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70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시청각실, 볼일 많은 토요일 오후 시간, 청소년들에게 생소하고 인기 없는 불교~, 얼마나 모일까? 백여 개의 좌석은 채울 수 있을까? 손님 모셔놓고 창피는 안 당할까? 오후 2시, 시간이 가까워온다. 나도, 우리 아이들도 가슴 조이며 기다린다. 그런데 아이들이 몰려온다. 한 명, 두 명, 열 명, 백 명, 와~ 백 명이 넘었다. 시청각실 좌석이 꽉 찬다. 아이들이 계속 몰려온다. 나와 우리 아이들은 시청각실 앞에 있는 화학실 문을 열고 의자를 갖다 날랐다. 연단 바로 앞 공간까지 좌석이 꽉 찬다. 그래도 아이들이 몰려와서 좌석과 좌석 사이의 통로까지 완전히 메운다.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다. 2백 명이 넘는다. 와~ 2백 명이 넘는 눈푸른 소녀들~, 〈중략〉 유정애 김옥배 등 준비한 고3 아이들은 울고 있다. 속으로 속으로 소리 나지 않게 울고 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온다."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는 김재영 법사의 어린 시절부터 80성상의 기록을 담고 있다. 특히 불교에 입문하여 활동한 불교인생 60년은 개인사를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의 생생한 기록이기도하다. 가족을 비롯한 개인적인 인연에서부터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만난 인연들과 불교활동을 하면서 만난 인연들, 그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진솔하게 담겨 있으며,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소회, 문제의식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역사는 한국불교사와 함께 한다.

그의 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의 하나는 〈법구경〉과의 만남이다. 1967년 나이 서른에 만난 〈법구경〉은 그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 회고록의 3장 '방황과 각성' 편에서 김 법사가 〈법구경〉과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공포와 괴로움으로 살고 있던 김 법사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된다. 바로 〈법구경〉이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책 속에는 '길'이 있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 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김 법사는 갇혀있던 문제에서 풀려난다. 책은 "'죽음'이 빙산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다"라고 적고 있다. 불심 깊은 모친 슬하에서 자란 김 법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 그늘에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뒤늦게 부처님에 빠진 김 법사의 공부는 나날이 깊어갔고, 그 깊어진 부처님 공부는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전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 부처님으로부터 선생님이 물들고,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이 물들고, 그렇게 물든 학생들이 모여 불교학생회가 된 것이다.

이후 김 법사의 전법·포교 불사는 그야말로 활발발한 일로를 걷는다. 청소년 포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교재 〈보리誌〉를 발행했고, 청보리학생회-청년회를 통한 청보리 운동은 1970~1990년대 한국불교의 중흥에 일조했다. 학교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김 법사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졌다. 광덕 스님의 평전을 집필하기도 하고, 국제구호단체 '자비수레꾼'을 창립하여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돕는가 하면, '빠리사학교'를 설립하여 수십 명의 전법사를 배출했다. 이렇듯 그가 현대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는 책이라기보다는 대작의 완성된 퍼즐을 보는 것 같다. 일기장의 육필처럼 문법 너머로 툭툭 던져놓은 문장들은 문장이라기보다는 그 날 그 날의 기억의 퍼즐 조각처럼 보인다. 특별한 문법 없이 차례차례 이어놓은 퍼즐 조각들이 한 권의 회고록을 완성한다.

"이 글은 내 개인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로는 1970~1990년대 한국불교 현대사를 현장체험으로 리포트하는 것이고, '해탈' '열반' '불사(不死)' '한소식' '깨달음'의 허구적 관념덩어리를 부수고, '부처님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애쓰는 보살은 빛나는 몸으로 다시 탄생하는 단순명료하고 생생한 무한생명의 메시지'를 현장상황으로 전하는 것이다."

책의 끝에서 김 법사는 말한다. "사랑하는 이 땅의 불자도반들~, 죽음 앞에서 다시는 헤매지 말고~, '나는 보살이다~, 세세생생 보살도~, 나는 빛나는 몸으로 다시 돌아와 동포들 함께 걷고 걷는다'~, 굳센 신앙 신념을 가지고 힘차게 당당하게 함께 살아갑시다.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반야 마하반야바라밀."

현대·미래 언어로 쓴 SF소설 '십우도'



아이 찾는 아이
김태라 지음
운주사 / 1만5천원

"여긴 정말 현실 같은 세계네. 용수가 레벨 1의 아이를 보며 말했다. 용수는 얼떨결에 이곳에 들어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내심 기쁜 마음도 들었다. 이제 자신에게도 할 일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용수는 가슴이 뛰었다. 얼른 아이를 찾아 자신도 당당히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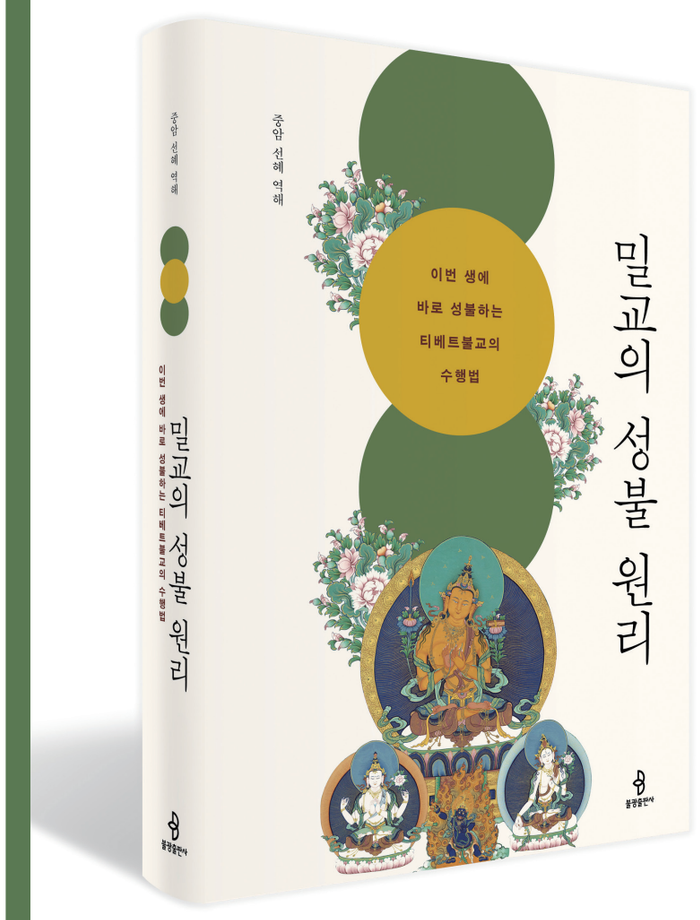
책 〈아이 찾는 아이〉는 십우도와 게임 메타버스를 결합한 SF소설이다. 인간 본성과 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다룬 철학적 소설이기도 하다.

심우, 견적, 견우, 득우, 목우, 기우귀가, 망우존인, 인우구망, 반본환원, 입전수수. 십우도의 열 단계다. 소를 찾아 속세를 떠난 주체가 소를 길들여 돌아온 뒤 소도 없고 나도 없음을 깨닫고 세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소설은 이러한 십우도의 줄거리를 시대적 흐름에 맞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창조했다.

목동이 소를 찾는 단계별 과정을 소년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약하는 스토리로 바꾸고, 십우도의 중심 소재인 '소(牛)'를 '아바타'로 치환하여 주인공이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로 형상화했다.

작품 형식에 있어서는 십우도의 열 단계 구조를 기초로 하되, 각각의 단계들을 이야기의 장(章)으로 구성하고 세분화하여, 스토리텔링의 흐름 속에서 십우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개현될 수 있게 했다.

십우도는 자체로 상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학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의미를 생성·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십우도에 관한 관심은 주로 수행의 측면이나 학문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온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소설은 십우도를 차용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로 형상화함으로써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존재와 세계, 그리고 인간 본성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밀교 수행 원리의 요점만 가려 모은 티베트불교의 수행 교재
『시이꾸쑴랍쌜된메(因位三身行相明燈)』

바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 원리의 전모를 밝히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경론 번역에 매진 중인
중암 스님이 빚어낸 티베트불교 수행 비법의 모든 것

티베트불교는 현교와 밀교로 양분한다.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인 현교는 소승과 대승불교를 가리키고, '은밀하게 전수된 가르침'인 밀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교를 어느 정도 익힌 수행자는 밀교인 금강승 수행에 들어간다. 현생에서 삼신(법신·보신·화신)을 모두 성취하여 보다 많은 중생을 빨리 제도하기 위함이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면서 수행과 티베트어 경론 번역에 매진해온 중암 스님이 『시이꾸쑴기남샥랍쌜된메』의 티베트어 원전을 충실히 옮기고, 그 의미를 풀어내어 금강승 수행 비법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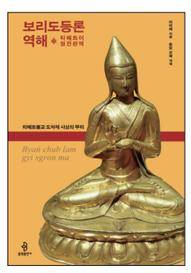
밀교의 성불 원리 이번 생에 바로 성불하는 티베트불교의 수행법
중암 선혜 역해 | 436쪽 | 양장 | 값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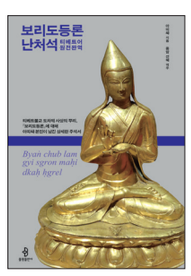
국내 최초 티베트어 원전 완역으로 만나는
티베트불교의 정수!



개정 완역
티베트 사자의 서
빠드마쌈바와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4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연
보리도등론 역해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해
368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연
보리도등론난처석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2쪽 | 양장
40,000원